

노마드 시대의 한국문학

임헌영(任軒永)

1. 문화의 세기가 의미하는 것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 앞에 ‘문화’란 접두사가 붙게 된 현상, 즉 정치 문화, 기업 문화, 노사 문화, 심지어는 시위 문화란 술어까지 등장한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라고들 한다.

보드리야르는 포드 T형 승용차가 만들어졌던 1908년을 생산 시대의 절정기로 보았다. 대량생산으로 다른 회사가 2천 달러씩 받던 승용차를 290달러로 보급했던 포드 T형 승용차는 나래 돌친 듯 팔려 급신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1927년 5월 포드사는 이 차 생산을 중단



문학평론가. 중앙대학 국문과 겸임 교수.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1967년 《현대문학》 평론으로 등단. 문학평론 주간,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회장. 대표 저서로는 『한국근대문학 사상사』, 『분단시대 문학』, 『민족의 상황과 문학 사상』, 『한국근대 비평사의 쟁점』 등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건 GM사의 신형이 등장했기 때문이었다. T형이 인간의 운반기능을 해결해 주는 기능으로서의 ‘상품’ 생산에 충실했다면 후자는 단순한 운반 기능만을 가진 기계가 아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소유’ 욕망을 촉발하도록 만들어 전자를 압도해버렸기 때문이었다.

이런 사실을 적시하면서 보드리야르는 1927년을 인류 역사에서 ‘생산’의 시대 상품이 그 기능만으로 존재하던 시대가 끝나고 ‘소비’의 시대 곧 ‘예술품’을 창작하는 시대로 전환했다고 말한다. 바로 마르크스의 상품생산 이론이 무기력해지는 순간이다.

소비 시대의 사람들은 두껍고 따뜻한 의상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우며 조화로운 색채인가를 중요시하기에 ‘옷’이 아닌 ‘예술품’을 찾게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기업체는 상품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품을 창조해야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영양가와 허기를 채우려는 먹거리조차도 ‘욕망’하던 시대에서 우아하고 맛깔스런 예술적 분위기를 찾는 시대로 바뀌었고, 전투기나 군함까지도 예술적인 미학의 점점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상품 생산 시대에는 과학과 자본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지만 예술품을 창조해야 되는 시대에는 기업주와 노동자의 예술적 안목과 감식력이 성패를 좌우하도록 변해버렸다. 기업가는 적어도 문화예술을 통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미학적 취향이 어떤 유형인가를 적중시키는 예지를 길러야 하며, 상품이 아닌 예술품을 생산하려는 미의식을 가져야 하도록 세상은 변했기 때문에 정치가, 경제인, 종교인, 과학자, 교육자 등 누구도 예술적 감각을 길러야 한다는 점에서는 예외일 수가 없다.

이 말은 예술도 상품이 될 수 있다는, 영화나 소설이나 노래와 만화가 수출되어 외화를 벌어들인다는 식의 ‘한류’ 정도로 인식하는

단순 논리가 아니다. 물론 문화예술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지만 정작 21세기를 지배하는 사상으로서의 ‘문화 예술의 세기’란 모든 인간의 행위와 소비활동 자체가 문화 예술적 감식안 위에서 이뤄진다는 뜻이다. 그러기에 욕망이 지구를 지배했던 시대엔 과학과 경제 만능주의였으나 이제는 생산과 소비 자체가 문화 예술적 행태 위에서 이뤄진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화와 예술의 세기’란 어휘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홉스 봄의 역사인식에 따르면 20세기는 “전쟁과 살육의 세기”로 인류가 1억 6천여만 명이나 비명횡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마 우리 민족사도 단군 이래 100년 동안 가장 많은 인명 피해(정확한 통계조차 없다)를 낸 세기일 것이다. 이런 비인도적인 시대에 종막을 고하고 21세기는 평화의 세기가 와야 한다는 전제 아래 ‘문화의 세기’란 구호가 온 지구에 회자되지만 냉철하게 뜯어 보면 세계화와 동의어로 세계화를 이룩하는 방법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21세기는 문화에 의한 정복의 세기로 이는 세계화와 똑같은 위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우리다운 문화’를 창출하여 그 같은 문화적 도전에 응전할 수 있어야만 진정한 문화와 예술의 세기라고 몇몇이 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무엇이 21세기 문화의 특징인가

21세기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노마드(nomade)시대의 본격화(가타리와 아타리, 그리고 들뢰즈의 분석)란 견해도 강하다. ‘도시 유목민’화 속의 인간상(가벼움, 자유로움, 환대, 경계심, 접속, 박애), 7백만 이상 도시가 지구 위에 5백 개 탄생, 3백여 국가, 청소년 30억(전인류 80억),

평균수명 120여세를 전망하는 엄청난 변화는 문학조차 이대로일 수는 없도록 압박한다.

“1만 년 전에 정착된 농경 문명은 머지않아 유목(노마디즘)을 중심으로 재건될 것이다”는 선언은 “지난 30년 전부터 인류의 5%가 유목화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외국인 근로자, 정치적 망명자, 자신들의 땅에서 쫓겨난 농민들, 하이퍼(초상류) 계급의 구성원들이다. 미국에서는 주민 5명당 1명이, 유럽에서는 10명당 1명이 매년 이사를 다닌다. 30년 후에는 적어도 인류의 10분의 1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유목민이 될 것이다.”(자크 아탈리 『21세기 사전』)는 말로 노마드의 개막은 입증된다.

해외 동포가 7백만, 연도별 해외 여행자 7백만, 연간 외국인 입국자 5백만, 약 20개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30만 명을 감안하면 한국 사회구조는 노마디즘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마드 현상으로 말미암아 최근 한국문학은 기행체 소설, 기행 시, 기행 수필이 대유행을 하고 있다. 이런 노마디즘 현상은 문학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변모 현상을 나타낸다.

첫째 가족 분해와 해체를 기본적인 정서로 삼는다. 세계 문학사에서 서사구조의 가장 큰 요인은 ‘가족 갈등’이었다.

권지예의 소설은 노마디즘의 공식에 너무나 들어맞는 작품들인데, 여기서 주인공들은 고착된 가족관을 초탈한 채 애정을 추구하다가도 다시 가족으로 회귀한다는 점에서 윤대녕과 다르다. 윤대녕의 인물들은 만난 지 3시간 만에 러브호텔에 들어갈 망정 사랑한다거나 결혼하자는 말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권지예의 주인공들은 어떤 강력한 애정도 ‘동거 형태의 삶’(보통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한 결혼이란 개념과 동일시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으로 회귀하는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다. 어디 해방을 꿈꾸지 않는 영혼이 있으랴만 권지예는 그 술한

인간상 가운데 유독 ‘창백한 여인’들의 처지에서 그 아픔과 고뇌를 증언하는데 작가의식을 소진한다.

바로 이런 상처를 드러낸 전형적 여인상으로는 「나무 물고기」의 한미아를 들 수 있다. 40세이면서도 전혀 나이를 짐작 못하게 만드는 이 ‘백조’ 여인은 오랜 세월 프랑스에서 살았으며, 남편은 고고미술사학을 공부해…… 교수가 되었고, 자신은 가끔 번역이나 하고 지내는, 겉보기에는 행복한 이 여자. 수영 강습 기초반에 다닌 지 보름이 넘었건만 물에 뜨지를 못하는 한미아를, 10년 전 고향에서 올라와 전문대를 겨우 다니다 만 남자 수영 코치의 시선으로 기록한 게 이 작품이다.

이쯤 하면 눈치 빠른 독자들은 대뜸 아, 유부녀와 수영코치의 불륜을 상기할 테고 사실 그 예측은 빗나가지 않는다. 감기로 일주일간 결석하자 남자는 여자에게 연락해서 만나게 되고, 그녀의 초청으로 집에까지 가서 남편이 아프리카 조각에 관심이 많아 파리 있을 때 모두 사 모은 탈과 가면, 목조 전신상 중 유독 어느 부족들이 모시는 목어(木魚) 곧 작품 제목인 ‘나무 물고기’에 시선이 머문다. 달마의 오묘한 전설이 스며있는 이 나무 물고기를 여주인공은 “생물을 깨우치기 위해서”와 “영혼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기 위해”서라고 남자에게 풀이해 주는데, 바로 여기에 그녀의 원죄의식이 숨겨져 있다.

그녀는 일곱 살 때 낮잠에서 깨어나 홀린 듯이 물로 걸어들어 가버려 오빠가 구출하러 따라 들었고, 놀란 어머니가 그 뒤를 이었으며, 나중엔 아버지가 뛰어들어 ‘나’(한미아)를 구해 놓곤 다시 물로 들어갔으나 셋이 다 익사한 죄의식에 젖어있다. 그녀의 별명은 ‘물귀신’이나 정작 물에만 들어가면 허우적대기만 해서 “두려워하는 것에 도전해 보자고” 수영을 배우려 했다는 내력이 밝혀진다.

여인은 남자가 요구하는 돈 3천만원을 선뜻 주선했을 뿐만 아니라

남편이 해외로 나간 틈을 타 여행을 주선했다. 그러나 정작 바닷가 호텔에서 밤을 기다려 왔던 달떠 있던 여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고, 꿈쩍 않고 잠에 빠져들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 행방불명이었다.

작가는 여기서 또 반전을 시도한다. 그녀의 남편이 찾아와 전한 말로는 이런 행불이 “이번이 세 번째”로, “없어지긴 물가에서 모두 없어졌는데, 엉뚱한 데서 찾지요. 첫 번째는 결혼 전이었는데, 강원도의 절에서 찾았구요. 두 번째는 대구에서 찾았어요. 찾으면 술래에게 들킨 어린애처럼 얄전하게 돌아오지요. 난 이제 찾지 않을 거요. 지쳤어요…… 이번엔 어쩐지 내게 돌아올 것 같지도 않구요.”라는 것이다.

이 여인, “천형의 긴 그림자”(작가의 「창작 노트」)에 끌려 다니는 창백한 여인, “지상에 잘못 올라온 인어”같은 여인이 곧 권지예의 소설을 관통하는 한 전형성을 이루고 있으며, 그런 여인을 위해 남자들이 아무리 나무 물고기(목어)를 두드려줘도 그녀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채 중음신으로 헤맬 뿐이다. 그게 바로 권지예의 여인상들이다.

인생이란 화려 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장엄하지도 않으며 다만 뱀장어의 몸부림과 같은 걱정을 조용히 끓여내는 것이 아닐까……. 스튜 냄비의 밑바닥처럼 뜨거움을 견디고 살아내는 것인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기 때문이다. 신이 조절한 타이머에서 종소리가 날 때까지 말이다. 하긴 꼭 뱀장어 스튜가 아니면 어떤가. 삼계탕이나 곰탕, 뭐 이런 것들도 조용히 끓고 있는 것이다.

—「뱀장어 스튜」

「뱀장어 스튜」는 우리 시대의 황량한 윤리의식의 부표다. 탕녀와 정절녀의 구분법이 효력 상실해버린 후기 산업사회의 사랑법은 여기

서 그 이정표가 다시 세워 질 것이다. 주제에 걸맞게 형식도 잘 짜여진 정치한 액자소설이다.

그것은 불륜이 있으면 가정은 파탄한다는 뻔한 윤리적 결말이나, 이런 지경이면 가족을 버리고 애인을 따라가야 한다는 농경적 낭만주의의 가치질서를 과기한다. 불륜 이후에도 떳떳하게 남편에게 회귀하는 엘리카 종의 『날기가 두렵다』가 미국적 노마드의 출발이라면, 불륜이 가족 해체가 아니라 도리어 가족 수호의 바탕이 되었다는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는 미국적 노마디즘의 절정이다.

틀뢰즈와 가타리가 ‘다성욕(polysexuality)’으로 이름 부친 이 시기의 노마디즘은 ‘개인들만큼 많은 성’을 인정하는 단계를 뜻한다는 점에서 페미니즘과 직결된다.

노마디즘의 문학은 이런 초보적인 작품 성과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정작 한국사회는 이미 노마드화로 깊숙하게 빠져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대홈 쇼핑의 캐나다 매니토바주 이민상품 판매가 80분 만에 175억원을 올렸다는 신화와, 이민 희망 이유로 한국사회에 대한 불만을 거론한 게 50%란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상층 노마드 계급에 속하는 이런 통계수치의 참 모습을 파헤쳐 주는 문학이 아직도 없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리 문단의 조망대가 낮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문학의 왜소화를 느끼는 대목이기도 하다.

노마드 문학이 놓치고 있는 게 또 있다. 하층 노마드에 작가들의 시선은 아직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88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늘어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은 대략 30여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세계적으로는 1억 5천 만 명에 이르고 있다. 주로 제3세계 나라의 유이민으로 이뤄진 이런 외국인 노동자 급증현상은 노마드 사회가 상류층이 주도하지만 하류층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임을 일깨워준다.

이런 국제적 노마드와 결부해서 국내적 노마드 현상도 지나쳐서는 안될 것이다.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쓰기 시작한 ‘홈리스족’(중앙일보 1. 20.)이란 술어가 극빈층만이 아닌 30~40대의 화이트 칼러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은 하류층 노마드화 현상을 가속화시킨다. 세계화란 곧 노마드의 다른 한 측면이며, 21세기의 신제국주의의 출현은 이를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노마디즘은 환경생태계 문제와 함께 가장 중요한 문학적 주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런 현상을 다룬 작품이 박범신의 『나마스테』이다.

노마드 시대는 무엇이나 불확실하다. 갈브레이스의 술어인 불확실성의 시대란 21세기에 적중할지 모른다. 어떤 재벌도 역사의 부침 속에서 불확실하여 1세기 동안 지속된 기업이 거의 없다(미국은 제너럴 엘렉트릭 뿐). 문학도 다양화, 단명화하여 최근에는 베스트 셀러의 단명화가 현저하다.

3. 불륜의 폭증과 사랑 부재. 가족의 분해.

줄리아 클리스테바는 『사랑의 정신분석』에서 현대인은 사랑의 결핍에서 모든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 치유법은 에로적 사랑에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진부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의 타성적인 사랑은 이미 로버트 제임스 윌러의 『매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처럼 일상화된 사랑, 사랑 때문에 인생을 바꾸지 않는 보통 사랑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5년 결혼 생활 뒤 9년 전에 아내와 헤어진 사진작가 로버트 킨케이드는 보통 여자 프란체스카 존슨과 열렬히 사랑했지만 그 어느 쪽도 자기 인생의 행

로를 바꾸진 않았다.

모순은 이런 점이야. 만일 로버트 키키드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오랜 세월을 농촌에 머무를 수 있었을 것 같지 않구나. 나홀 동안, 그는 내게 인생을, 우주를 주었고, 조각난 내 부분들을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

(프란체스카의 말)

이전 시대의 소설이라면 당연히 가정이 파탄 나야 하지만 오히려 반대현상이 나타난다.

공지영의 「조용한 나날」(단편집 『존재는 눈물을 흘린다』 수록)도 바로 이런 변모를 담아낸다. 첫 애인을 다른 여인에게 보내주고, 결혼한 남편 역시 또 다른 여인에게 가게 한 뒤 결혼한 여주인공은 36세.

나는 옷을 벗고, 강물이 베란다 밑에서 찰랑이는 모텔방에서 김 대리와의 익숙한 섹스를 했다. (……)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 나는 눈을 내리깐 채, 수첩을 꺼내 오늘자 일기를 메모한다. 아무일도 없었다. 오늘도 조용한 하루였다, 라고.

한국 소설에서 사랑의 변천은 아줌마 세대의 반항 혹은 순응으로 투영된다. 통상 38~59세 사이를 지칭하는 중년이란 단어에 묶일 수 있는 게 전체 여성 의 23%를 넘을 수 있다 는 추론이 가능하고 보면, 그리고 이 계층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독서인임을 감안한다면 중년여성의 문학은 그리 안이하게 넘길 화두가 아니다.

중년여성의 위기를 첫째로는 “인생의 목표와 성취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늙어 가고 있으며 결국 죽으리라고 인식” 하는 것,

둘째는 “세대간의 간격”, 셋째는 “육체의 변화”, 넷째는 “가족 속에서의 역할 변화”를 들고있다.(여성을 위한 모임 지음, 『제3의 성 - 중년 여성 바로 보기』 현암사, 1999, 제1장 참고.)

『아줌마는 아하면 안되나요?』(양은영 지음, 다솔, 1995)나 『주부가 말하는 성 이야기』(이재경&김영미, 지성사, 1995) 등등의 노골성을 드러내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격이 되어버렸다. 유부녀의 애인 신드롬에 대한 설문조사.

“애인이 있으면 좋겠다”에 대한 응답 ; 정말 그렇다(1.2%), 그렇다(15%), 그렇지 않다(39.1%), 전혀 그렇지 않다(22.5%), 잘 모르겠다(22.2%).

“만족스런 성생활이 없다면 결혼생활은 행복할 수 없다”에 대한 응답 ; 정말 그렇다(3.1%), 그렇다(29.9%), 그렇지 않다(26.8%), 전혀 그렇지 않다(7.3%), 잘 모르겠다(33%).

“현재 남편과의 성생활에 만족한다”에 대한 응답 ; 정말 그렇다(6.6%), 그렇다(47.3%), 그렇지 않다(11.6%), 전혀 그렇지 않다(3.9%), 잘 모르겠다(30.5%), 친정 식구와의 불화(1%), 성격 차이(52.6%), 시집 식구와의 불화(13.9%), 경제적 문제(11.9%), 혼외 성관계(3.6%), 남편의 음주.도박.외박(10.8%), 성생활(3.1%), 기타(3.1%).

— 위와 같은 책, 『제3의 성』, 제4장 「중년여성의 성과 사랑, 신기루는 없다」

세상 사람들의 선입관처럼 성문제가 중년여성의 모든 것이라는 통념에 대한 반론이자, 왜 작가들은 진솔한 중년 여성들의 고뇌를 그려내지 않고 오로지 섹스에만 승부를 거는가 라는 반문을 던지고 싶기 때문이다. 결코 성문제의 도외시나 외면이 아니라 다른 많은 요인을 껴안으면서 성문제에 접근해야 바람직한 중년여성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사랑은 문학의 영원한 주제였고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1970년대 이후 한국의 대중문학은 사회변천에 따라 초점이 확연히 움직여 왔음을 느낄 수 있다. 호스티스문학으로 불려졌던 최인호, 조선작, 조해일의 소설이 접대부의 남성 편력에 주안점을 뒀다면, 페미니즘 세레 이후 세대의 소설들(이경자, 양귀자, 공지영 등)은 여성의 평등권 획득을 위한 투지가 돋보였었다.

이제 세기가 바뀌면서 여성문제 소설들은 원초적이자 전위적인 성문제로 그초점을 바꾸고 있다.

30대가 대중소설의 주류 를 형성하는 이유는 비단 이 연배(30~39세)가 전체 이혼 중 51.5%라거나, 결혼 기간 2~5년 사이가 이혼자의 46.6%며, 배우자 부정이 그 원인의 40.7% 라는 따위의 통계 말고도 20대의 호스티스 문학이나 40대의 중년부인 문학에서 소외당해 왔던 여성과 성문제의 원점 회귀란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내 몸은 변했다. 나 자신마저도 낯설어 깜짝 놀라는 위험한 관능이 그 속에 은닉되어 있었다. 그건 참으로 낯설어서 어떻게 다루어야할지 불안한 것이었다. 생을 가장 어둡고 질척한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동물적인 몰입. 이것은 평범 한 여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선물일까, 혹은 극복해야 할 재앙 일까. 규와 섹스를 할 때면, 더 이상 먹지도 말고 잠들지도 말고, 낮이 되지도 말고, 밤이 되지도 말고 그 순간 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꿈에 빠진다.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 146쪽.

전경린의 장편 『내 생애 꼭 하루뿐일 특별한 날』의 서사구조는 남

편의 외도에 화가 난 아내의 맞바람으로 가정이 파탄하는 이야기다. “대학 강사직을 그만두고 인쇄 편집 사무실 일을 하는 남편(효경)에게 크리스마스날, 근처 지업사에서 일했던 아가씨(정영우)가 집으로와 “내가 오빠를 통째로 빨아 당긴대. 내가 조이는 그 순간을 오빠는 영원히 못잊을 거라고 했어”라면서 33세의 아내 이미흔에게 이렇게 쏘아붙인다.

“내가 아기를 굶어내고 마취에서 깨어날 동안 오빠 꼼짝 않고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렸어. 우린 장난을 한 게 아니야. 오빠 나를 분명히 사랑했어. 당신 같은 안전주의자가 평생을 나누어도 못 나눌 양의 사랑을 우린 나누었어(이 대목은 『폭풍의 언덕』의 히스클리프의 모방처럼 느껴진다). 넌 나에게 가라고 하면 안 돼. 미안하지 않냐고? 전혀. 나에게도 너만큼의 권리는 있어.”

부부는 냉전 속에서 한적한 바다를 낀 지방 도시의 서점 일을 찾아 내려 갔고, 거기서 이미흔은 긴장이 지속되는 4개월 동안만 서로를 허용하는 “구름 모자 벗기 게임”을 요구하는 유부남에다 재산도 가진 플레이 보이 우체국장 규와 열애에 빠진다.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게임은 끝나는, 육체만을 교환하는 이 놀이에서 둘 다 패자가 되어 사랑을 느껴버렸고, 이 불륜은 탄로되지만 그 와중에도 만나 교통사고를 당하여 이별이 강제된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자신의 사랑을 찾은 제로 섬 게임 법칙대로 순순히 헤어지게 되는 결말은 효경보다는 이미흔의 육체적 자아 발굴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가정이란 구역질 아니면 공포”며, “행복이란, 무지한 상태의 다른 말”로 인식되는 이미흔에게 규와의 관계는 육욕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모든 조건이 충족된 실존적 자아의 확립에 다름 아닐 것이며, 그녀에겐 일생에 특별한 날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심각성에 대비례하여 우리 문학은 노인문제를 심각한 주제의 하나로 부상시키기보다는 외면하는 쪽이어서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동안 발표된 1200여 편의 소설 중 노인이 등장인물로라도 나오는 작품이 119편(약 10%), 노인 주인공은 54편이라고 서정자는 「하강과 상승 그 복합성의 시학 - 최근 10년의 노년소설에 나타난 노인의식과 서사구조」에서 밝혔다. 고작해야 1990년대 후반부터 성행하기 시작한 한국의 노인 주제 소설은 주인공들의 연령 하강 추세와 에로티시즘에 밀려 정년 퇴직을 당한 듯이 독자 대중의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다.

4. 과연 거대담론이 사라졌나?

노마드 시대란 불륜만이 판치는 시대가 아니다. 문화와 예술의 시대라는 구호와는 달리 21세기가 열리면서 역사적인 거대담론은 더욱 격화되어 절박해지고 있다. 거대담론을 외면한 것은 일부 인사들의 주장이었고, 이를 기화로 문학의 대외적인 역량이 위축되어 왔다.

그런 논리에 부응하여 출판에서도 기대담론을 기피하는 현상이 당연히 되었지만 과연 독자들이 거대담론을 피하고 있을까? 작가 스스로 먼저 거대담론 피해서 독자를 타락시켜 왔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문제 역시 구체적으로 독자 분포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초대형 베스트셀러는 다 거대담론 작품이다.

거대담론을 기피하므로써 오늘의 문학은 문학 전공자나 문학 애호가만의 독자층으로 재편되어 가고 있다. 최영미의 시가 10대부터 80대까지, 기업인부터 학생까지 넓은 독자층을 형성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오늘의 시가 얼마나 왜소화 되어 가고 있는가를 감지할 수 있다.

거대담론이 사라졌다는 것은 서사구조의 소멸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역사가 무의미해졌다는 의미로 이어진다. 이런 속에서는 장편소설이 설 자리를 잃는다. 최근 우리 문단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각종 상금이 인상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결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문학은 문학 전공자만을 위한, 연구를 위한 창작품만이 아니다. 물론 그런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전 연령층에 걸쳐 어떤 직업인이든 흥미를 지닐 수 있어야 하며, 그건 한 시대의 거대담론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세계문학을 거시적으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 편지사 선진국의 중요 문학상을 보면 프랑스의 공쿠르상, 독일의 뷔히너상, 영국의 부커상, 그리고 미국의 풀리처상 등 수상작의 상당수가 그들 나름대로의 사회가 지닌 거대담론을 다루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유색 내지 혼혈인 출신 작가나 구 식민지역 출신 작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이 다룬 문제는 인종편견과 자국내 소수인(외국인 이주자 혹은 불법 체류자 문제 등) 차별 비판, 종교적 편견에 대한 비판, 페미니즘과 반전 평화, 환경생태계 문제 등이다.

선진국 중 일본의 아쿠타가와 수상작은 사뭇 다르다. 사회적인 쟁점을 다루기보다는 철저히 인간의 내면 풍속도와 에로티시즘을 소재로 한 작품 일색이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가장 연문학(軟文學)적인 경향이 짙은 일본은 그 사회조차도 제2차대전 이후 한번도 정권 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보수당 최장기집권에다 지구 위의 어떤 나라 왕보다도 더 높은 '천황'제를 고수하는 국체(國體)를 지탱하고 있다. 거기에서 일본의 지식인들은 현실비판 의식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장 낮으며, 언론매체들도 극우보수 일색이다. 바로 일본식 연문학이 낳은 결과다. 우리나라 일부 문학인들이 그네들을 모방하거나, 상당수 독자들이 이런 경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은 심각

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해외동포문학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5. 문학이 과연 다른 장르에 앞서고 있는가

문학이 기초예술 중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유사 이래 인류의 예술사가 능히 증명해준다. 오페라, 미술, 발레, 영화, 드라마 등의 원작들 상당부분이 문학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과연 오늘의 한국문학도 그런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적어도 20~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문학은 무대예술과 스크린 예술, 그리고 각종 전파예술의 상당부분을 견인해준 기관차였다. 원작이 드라마와 영화와 연속극으로 활용되기 일쑤였고, 그럴 경우에는 원작 시나리오보다 소설가 원작이 독자들에게 더욱 매혹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그러나 문학작품 우대 원칙은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는 다른 장르(예컨대 드라마)가 오히려 소설을 견인해주는 위치로 변하지 않았나 하는 서운함이 들 지경이다. 드라마에 대한 신문기사가 문단에 대한 기사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드라마의 내용 또한 사회적인 쟁점들을 가장 심도 깊게 다루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드라마 <모래시계> 만큼 공감대가 넓게 광주향쟁을 인식시킨 소설은 유감스럽게도 없다. 몇몇 작품(단편 중엔 걸작도 있다)이 있지만 너무나 건조해서 일반 독자들이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이건만 평론가들은 찬사가 늘어졌다. 가련한 평론가들의 무책임한 찬사가 우리 소설을 뒷걸음질 치게 하지는 않는지 모르겠다.

유감스럽게도 오늘의 문학은 상상력에서는 컴퓨터 게임에 못 미치며, 작가정신의 치열성은 드라마 작가의 그것에 뒤지고, 역사와 현실 의식의 추구에서는 실록과 기자들에게 그 영역을 빼앗겨버린 지경은 아닌지 의아스럽다.

선진국의 유명 문학상 수상작품과 우리의 유명 수상작을 비교해보면 일본 지향성이 너무 짙어 심히 유감스럽다.